

아버지! 아직은 그 강을 건너지마세요

에세이

김명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실장



“아버지가 마늘을 가지고오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다네요.”

퇴근하고 들어온 나에게 아내가 말을 건넨다.

아내의 말 속에는 다급함이 없었지만 표정은 처연했다.

어디서 들던 말이 생각났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관절을 다치면 거동이 불편하여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대부분 돌아가신다고. 나는 앞이 캄캄해졌다.

필자는 고향이 목포지만 40여년 전 경찰 초임직인 해남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아내와 결혼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형편이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다.

고향에는 밀로 동생들이 세명이나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아내와 결혼하고도 경찰봉급을 고향 목포로 전부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내는 남편의 월급 봉투를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무척 힘들었다. 물론 내가 아니라 아내가 힘들었다. 경제적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고 견뎌준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장인,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보리쌀 서말이면 처갓집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말도 나에게 사치스러운 말이었다.

결혼 초부터 장인, 장모님은 방세와 먹을 것을 대주었고 나는 기생충처럼 처갓집에 붙어 있었다.

장인, 장모님께서 우리집에 한번씩 들리시면 나 몰래 아내의 손에 용돈을 쥐어 주고 가기도 했다.

용돈은 사위인 내가 쥐야하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가슴아픈 얘기다.

나는 장인, 장모님을 친 부모처럼 생각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도 있지만, 장인, 장모님은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장인,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아버지, 엄마였다. 두 분이 나이에 비해 지금처럼 건강하신 것은 두분의 복이지만 자식들의 복도 아닐 수 없다.

올해는 엄마가 구십이었다. 팔남매가 모두 모여 간단한 구순 잔치를 할 때 하루종일 함박 웃음을 짓던 엄마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아버지는 내년이 구십이다. 내년에도 아버지 구순잔치를 멋지게 하자고 약속했는데 고관절 골절이라는 사고에 팔남매는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해남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고관절이 아니라고 했다. 불행중 다행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하나.

며칠후 바로 퇴원했고,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지만 나이가 있어 무척 힘들어 하신다. 계단을 오르기는 어려워 현관 앞 계단을 고쳐야 할 것 같다.

의자에서 일어날때도 세월의 무게만큼 힘들어 하신다.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깝다.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여름휴가라고 내려가면 우리 사위왔다고, 그 더운 날에도 암퇘지 어깨죽지를 양손에 끼어잡고 기쁜 숨을 몰아쉬며 쭈구리고 앉아서 닭털을 뽑던 모습도, 힘들게 농사지어 바리바리 보내는 식량과 반찬거리 속에 참기름 냄새만큼 고소했던 깊은 사랑도, 봉동계곡을 좋아한다고 자식들에게 좋은 자리를 쥐야한다고 몇시간 전부터 자리를 선점하고 계시던 모습도, 김장철이면 자식들 고생한다고 새벽 칼바람 속에서 냉기를 뚫고 배추를 쪼개고 소금을 뿌려 미리 간해놓고 계시던 모습도, 방금 낳은 달걀을 깨서 참기름을 얹어 내 입안에 억지로 밀어넣던 엄마의 손길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작년 봄에는 아버지가 원인 모르게 배가 많이 아팠다.

자식들은 걱정 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실 것인지 타협까지 했다. 아버지는 선산을 원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래야 니가 자주 올거 아니냐. 그럼 내가 명선이 왔나, 하면서 너를 반갑게 맞아줄게”라고 하신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눈가는 촉촉하다

가슴이 먹먹하다. 언젠가는 닥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담벼락에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었다.

며칠후 아버지를 모시고 목포병원에 갔다. 가는 길은 험난했다. 난생처음 맞는 국지성 소나기는 마치 하늘이 열린 듯 차 지붕을 뚫겠다는 듯 무섭게 쏟아졌다. 차 앞 시야는 3단 와이퍼가 무색할 정도였지만 무사히 목포병원에 도착하여 원인을 찾아 한달 가량을 입원치료하자 좋아하셨다. 빗길을 긴장하며 달리던 나를 보상이라도 하듯 감사드린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절대로 변해서는 안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내리사랑만 있고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식이나 손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열어진다는 얘기일 것이다. 자식의 반만큼만 부모님께 하면 효자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도 헛말이 아닐 것이다.

이제는 자식들과 영원히 작별할 시간들도, 살아오신 시간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기에 좋아하는 음식들도 한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 뵙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가끔 찾아 뵙고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 옆에서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의 효도를 나혼자 다한 것처럼 작각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아직은 강을 건너가시면 안됩니다. 팔남매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지금처럼만 우리곁에 더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토요일 완도가서 회 한번 먹읍시다”라고 전화라도 드려야 되겠다.

社說

집중력 발휘해 실력 최대로 끌어내길

오늘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

14일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다행히 이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매년 수험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던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한다. 초·중·고 12년의 시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수험생 모두가 자랑스럽다. 이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광주의 경우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1만 684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또한 목포를 비롯해 여수·순천·나주·광양·담양·해남 등 7개 시험지구, 45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만 3941명이 응시한다. 교육 당국은 올해 수능의 경우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총 461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97명 증가해 대학 입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위권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국 지원자도 재학생이 34만 777명, 졸업생은 16만 1784명에 이른다.

대학 입학을 결정짓는 수능은 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통과시험이기도 하다. 10여년을 참고 견디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을 수험생 모두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정심을 유지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응원한다. 시험의 부담을 키우는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시험이 주는 불안하고 초조한 강박감을 내려놓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수능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지만 그렇다고 수능이 전부는 아니다. 수험생 모두가 집중력을 발휘해 평소 실력을 최대한 끌어내길 기대한다. 오랜 시간 오늘의 시험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수능 이후를 대비한 교육당국과 자치단체의 대응도 중요하다. 지역 인재를 키우고 이들을 지역 발전의 선순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이순신대교 책임관리 나서야

관리 부담 지자체 전가 안돼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일명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이 10년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부담이 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정일(민주당·광양2) 의원이 전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비용은 올해 73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재원은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분담하고 있다. 이순신 대교의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할 때 관리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 광양산단,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국가산단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되는 만큼 이순신대교 관리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이를 위해선 이순신대교를 국도 59선으로 승격 시켜야 할 것이다. 이순신 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전남도 등이 줄기차게 국도 승격을 요구해 왔다. 오죽했으면 관리부담이 커지자 여수시와 광양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관리 부담으로 조망마저 커지 못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전남도는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관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당연하다. 전남 동부권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이순신대교의 국도승격이 10년째 미뤄지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속히 국도지정을 통해 이순신 대교를 전남동부권의 자랑거리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서석대



공론정치를 지향했던 조선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언로(言路)를 열어 놓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이른바 삼사(三司)라 불리는 상설 기관을 조정에 두어 임금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간쟁과 감찰, 자문을 했으며, 사대부들은 공론을 살피고 국정에 알리는 상소(上疏)를 무시로 올렸다.

학자들에 따르면 조선왕조 500년간 관료와 학자, 유생들이 올린 상소가 수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나라를 언로가 트여 민소(民訴)제도가 활발했던 것이 분명하다.

상소는 국민들이 언론이나 국민동의청원 등 여러 수단으로 국가 정책에 민의를 알리는 지금의 제도처럼, 조선시대에 국책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임금에게 개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기능했다.

조선의 지배계층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치라 생각했다. 하늘의 뜻 ‘천심’은 대중들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 여겼고, 대중들의 마음이 모여 형성된 ‘공론’을 살피고 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임금의 기본적인 책무였다.

하여 상소는 집권층이 공론을 듣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고, 임금도 가전상인과 격쟁, 상소에 귀 기울여 국정에 반영하려 애를 썼다.

상소는 관리들이 올리는 보고서인 장계(狀啓)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밀봉해 올리는 봉장(封章), 여러 사람이 연명해 올리는 만인소(萬人疏) 등이 있었다.

계중 가장 강력한 상소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로 올리는 지부상소(持斧上疏)다. 도끼를 들고 대궐 문밖에 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를 말한다.

우리 역사에 ‘내 말이 틀리다면 내 목을 쳐 죽여 달라’는 뜻으로 올리는 지부상소가 몇 차례 있었다.

1591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대궐 밖에서 사흘 동안 엎드려 일본 사신의 목을 베라고 청했던 조현(趙顯)의 ‘지부상소’, 병자수호조약 체결을 죽음으로 반대한다는 최익현(崔益鉉)의 ‘병자지부상소’가 대표적이다.

세상을 살리는 끈은 목소리, 상소는 그 특성상 임금에 대한 충고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자를 처벌하는 것은 자제했다. 상소를 통한 사회문제 제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라 꼴이 갈수록 험하다. 권력의 최상층부와 그 주변을 둘러싼 그치지 않은 온갖 잡음으로 소란하기 그지없다. 국정지지도 17%의 초라한 성적표가 웅변하듯 정치의 오간데 없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지부(持斧)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라를 위해 직을 걸고 극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직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제왕조도 아닌 법치국가인데 말이다. 음울한 먹구름이 언제나 걷힐는지 안타깝지만 하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 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